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치아 수에 따른 행복지수

공화수, 송은주*, 황수정, 장하람, 전다혜, 전민정, 정수아, 김혜진, 강경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치위생학과
대전 동구보건소*

The Happiness Index by the Number of Teeth of Senior Citizens Residing in Dong-gu in Daejeon

Hwa-Soo Koong, Eun-Joo Song*, Soo-Jeong Hwang, Ha-Ram Jang, Da-Hye Jeon,
Min-Jeong Jeon, Su-A Jeong, Hye-Jin Kim, Kyung-hee Kang
Dep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Daejeon Dong-gu Public Health Center*

요약 본 연구는 노인들의 치아 수와 삶의 행복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자 기입식 방법을 통해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자료의 처리는 SPSS 20.0을 사용하여 t-검정, 분산분석 후 Tukey 사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다고 나타났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령에서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치장착 여부에 따른 저작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01$). 치아 수에 따른 저작능력의 차이를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존 치아 수, 현존 치아 전치, 현존 치아 구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치아 수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현존 치아 수, 현존 치아 전치, 현존 치아 구치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 노인, OHIP-14, 행복지수, 치아 수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teeth of the elderly and their life happiness index. A face-to-fac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with elderly residents of Dong-gu, Daejeon from June 27 to July 25, 2012. A Tukey post hoc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implemented after a t-test and variance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satisfaction with life related to oral health was significant, but happiness in daily lif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elderly,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and happiness in daily lif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Masticatory performance difference depending on usage of dentures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p < 0.001$). The difference of masticatory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number of teeth was analyzed by a correlation analysis. The present number of teeth, present anterior teeth and molars demonstrated a correlation. Quality in life related to oral health depending on the number of teeth correlated with the present number of teeth, present anterior teeth and present molars.

Key Words : Senior Citizens, OHIP-14, Happiness Index, Number of Teeth

Received 1 October 2013, Revised 20 October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Kyung-hee Kang (Dep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Email: dhkhkang@kony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릿한 상태, 또는 심신육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 상태라고 정의된다. 행복은 주관적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개인의 행복 결정에는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등의 요인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보고 되고 있다[1].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건강상태와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은 이미 입증 되었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2,3]. 노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강건강 문제 중의 하나는 치아상실이다. 노인이 되어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저작능력이 저하되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선택 범위가 좁아지고 식사의 양과 질 역시 저하됨으로써 건강과 체력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아 상실은 발음과 외모에 영향을 줌으로써 대인관계 및 원활한 사회생활에 제한을 주게 되어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감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저작 시 불편함은 식사에 의한 행복감을 박탈함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4].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은 기본적인 수칙이며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로서 노인에서 구강건강을 제외한 건강을 완전한 건강이라 볼 수 없다. 전통적으로 구강건강상태 평가는 한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줄 목적으로 흔히 임상지수를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임상지수의 대안으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6].

특히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이후 행복,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만족감, 삶의 질을 의미하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출현하면서 노인들의 삶과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고 성공적인 것이었는지를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7]. 본 연구에서는 치아 수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노인들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대전 동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노인 불소·스케일링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여명의 검진과 설문조사 대상자 중 부적절한 응답한 경우와 구강검진을 거부한 11명을 제외하고 1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자료수집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일반 문항과 의치상태와 현존 치아수, 기능 치아수를 약당 각각 전치와 구치로 나누어 구강검진 기록지를 작성하였으며, 구강검사는 치과의사 1인이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기준에 따라 치아별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OHIP-14)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혼란된 조사요원이 직접 대면 조사자 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3 구강검사

치과의사 1인이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기준에 따라 치아별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현존 치아 수는 건전 치아와 충진치아 및 우식 치아를 포함한 치근이 존재하는 치아 수를 상악과 하악, 전치와 구치로 각각 나누어 기재하였다. 기능 치아 수는 고정성 보철물과 의치, 임플란트를 포함한 구강 내에서 저작기능을 한다고 판단되는 치아 수를 현존 치아 수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였다.

2.4 설문지

1)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개인 구강 건강

성별, 나이, 월평균 수입,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최근 치과 방문 경험, 주관적 저작능력(2문항), 치아와 의치상태, 현존치아 수, 기능치아 수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OHIP-14)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8], 두 문항씩 각각 7개 하위영역(기능적 제한, 신체적 동통, 정신적 불편, 신체적 능력저하, 정신적 능력저하,

사회적 능력저하, 사회적 분리)으로 나뉜다.

본 도구는 Likert5점 척도 즉,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보통이다(2점)’, ‘그렇지 않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0점)’로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각 문항에 부여한 점수(0-4)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OHIP-14의 범위는 0-56점이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14문항에 대하여 0.882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변인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지수의 타당도는 관련 논문[9]에서 경제력 2문항, 자기만족 3문항, 대인관계 1문항, 건강 1문항, 능력-잠재력 2문항, 가족관계 1문항으로 총 10문항을 추출했다. 본 도구는 Likert5점 척도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각 문항에 부여한 점수(1-5)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행복지수의 범위는 14-70점이다. 행복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행복지수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10문항에 대하여 0.826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변인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결과 및 고찰

3.1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행복의 차이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련 삶의 질과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차이는 <Table 1>과 같았다. 성별에 따른 OHIP-14의 차이는 남성에서 OHIP-14의 평균은 18.3, 여성은 22.3으로 여성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leq 0.05$). 행복지수의 차이는, 남성의 행복지수의 평균은 32.9, 여성의 행복지수 평균은 33.5로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61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 OHIP-14의 차이는 60대 후반에서 OHIP-14의 평균은 16.6, 70대 초반은 20.7, 70대 후반은 21.5, 80세 이상은 23.2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0.15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의 차이는 60대 후반에서 행복지수의 평균은 34.2, 70대 초반에서 34.0, 70대 후반에서 32.3, 80세 이상에서 32.6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6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 월평균에 따른 OHIP-14의 차이는 30만원 이하에서 OHIP-14의 평균은 22.3, 30만원 초과에서 OHIP-14의 평균은 18.8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

<Table 1> Difference in OHIP-14 and Happiness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

General Characteristic	N	OHIP-14	p-value*	Happiness	p-value*	
Sex	male	71	18.30±12.14	0.035	32.85±7.92	0.611
	Female	117	22.34±12.91		33.47±8.30	
Age	65-69	33	16.64±10.28	0.150	34.21±6.65	0.608
	70-74	65	20.65±13.65		33.97±8.22	
	75-79	46	21.52±11.88		32.30±9.05	
	80 or older	45	23.22±13.42		32.62±8.16	
Monthly Allowance (-000-KRW)	less than 300	107	22.25±12.45	0.069	31.98±8.22	0.011
	more than 300	82	18.84±12.89		34.99±7.78	

*T-test or ANOVA

<Table 2> Difference in Masticatory Performance by Denture Wearing

Category	N	Masticatory Performance	p-value*
Dentures	53	1.45±0.70 ^a	<0.001
Partial denture	28	2.07±0.72 ^b	
Natural teeth	82	2.21±0.81 ^b	
Need dentures but don't have	26	1.88±0.83 ^a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post hoc Tukey analysis

*ANOVA

복지수의 차이는 30만원 이하에서 행복지수의 평균은 32.0, 30만원 초과에서 35.0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의치 장착 여부에 따른 저작능력의 차이

의치 장착 여부에 따른 저작능력의 차이를 보기 위해 상악과 하악 의치 장착 여부를 의치, 한쪽만 의치, 자연치, 의치가 필요하나 하지 않음으로 나누었다. 의치 장착 여부에 따른 저작능력의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의치 장착 여부에 따른 저작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p<0.001).

3.3 치아 수와 저작능력의 Pearson 상관계수

현존 치아 수에 따른 저작능력의 차이는 <Table 3>과 같았다. 현존 치아 전치, 현존 치아 구치, 현존 치아 수와 저작능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현존치아 구치와 저작능력의 관계에서 r값이 0.418로 변수 중 가장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4 치아 수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행복의 Pearson 상관계수

현존 치아 수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았다. 현존 치아 전치, 현존 치아 구치, 현존 치아 수와 OHIP-14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현존치아 구치와 OHIP-14의 관계에서 r값이 -0.444로 변수 중 가장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Number of Tooth and Masticatory Performance

No. of tooth	Masticatory Performance
Existing anterior tooth	.298**
Existing molar tooth	.418**
No. existing tooth	.390**
Functioning anterior tooth	.012
Functioning molar tooth	.020
No. functioning molar tooth	.016

**p<0.01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OHIP-14 and Happiness Related to Number of Tooth

No. of tooth	OHIP-14	Happiness
Existing anterior tooth	-.298**	.056
Existing molar tooth	-.444**	.143
No. existing tooth	-.406**	.113
Functioning anterior tooth	-.070	-.047
Functioning molar tooth	-.080	-.038
No. functioning molar tooth	-.075	-.043

** p<0.01

3.5 행복과 구강관련 삶의 질의 Pearson 상관계수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문항을 경제력 2문항, 자기만족 3문항, 대인관계 1문항, 건강 1문항, 능력-잠재력 2문항, 가족관계 1문항으로 나누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았다. 경제력, 자기만족, 건강, 능력-잠재력은 OHIP-14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 대인관계, 가족관계는 OHIP-14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만족과 OHIP-14와의 관계에서 r값이 -0.429로 변수 중 가장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Happiness and OHIP-14

Category	OHIP-14
Financial Means	-.401**
Self-Satisfaction	-.429**
Interpersonal Relationship	-.289**
Health	-.366**
Ability-Potential	-.414**
Family Relation	-.271**

** p<0.01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노인에 관한 문제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영위 하고자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노인건강에서 전체 건강의 일

부인 구강건강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구강건강이 영향을 미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10].

본 연구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은 성별 OHIP 평균은 남성에서 18.3, 여성은 22.3으로 여성이 약간 높았으며, 연령대별 OHIP 평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성별 OHIP 평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으며, 연령대별 OHIP 평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김 등[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한 이[12]의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의 연령 구성비율과 남녀 구성비율의 차이에서 기인된 결과로 생각된다.

용돈 월평균에 따른 OHIP 평균은 30만원 이하에서 22.3, 30만원 초과에서 18.8로 나타나 구강건강 삶의 질에 연령, 성별, 월소득 등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이 등 [13]의 연구와, 한 달 용돈이 낮을수록 구강건강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신 등[14]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 치과에 내원하지 못하고 결국 구강건강을 악화시키게 되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노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연구[15]에 따르면, 의치가 없는 무치악 노인 집단이 유치악이거나 의치가 있는 무치악 노인 집단에 비해 저작 기능과 사회적 관계에서 장애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구강 건강이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 등[16]은 평균 현존영구치아가 많을수록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McGrath 등 [17]은 가철성 치과보철물이 없는 치아상실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치 장착 여부에 따른 저작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치아 수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현존 치아 수, 현존 치아 전치, 현존 치아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경제력, 자기만족, 건강, 능력-잠재력, 대인관계, 가족관계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 등[18]은 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개념, 자기 효능감 등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김 등[19]은 학력, 경제상태, 식생활, 전신건강 등이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 등[2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이 노인들의 전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구강건강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영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노인구강건강향상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한 현안이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인 노인을 대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기에 전국 노인을 대표할 수 없으며,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치아개수 외의 다른 변인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결과 추론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행복지수 문항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응답자의 지적 수준이나 성의에 따라 응답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치아 수는 여러 구강건강 결정 요인의 한 가지일 뿐이므로 이 연구의 기초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구강건강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과의 추가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치아 수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였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의치 장착 여부에 따른 저작능력의 차이와 현존 치아 수와 기능 치아 수의 저작능력의 차이를 밝혀 자연치와 저작능력과의 관계를 정립한 후 치아개수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관련이 있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중 하나인 성별에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서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용돈 월평균에서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의치장착 여부에 따른 저작능력의 차이의 유의 확률은 $p < 0.001$ 으로 나타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치’, ‘의치가 필요하나 장착하지 않음’집단과 ‘한쪽만 의치’, ‘자연치’집단이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셋째, 치아 수에 따른 저작능력은 현존 치아 수, 현존 치아 전치, 현존 치아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기능 치아 수, 기능 치아 전치, 기능 치아 구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치아 수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현존 치아 수, 현존 치아 전치, 현존 치아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기능 치아 수, 기능 치아 전치, 기능 치아 구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노인들의 현존 치아 수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련이 있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강건강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Jin-Ho Chun, Jin-Sun Yang. A Review Study for Developing Health Profiles to Measure the Self-Perceived Health Status of Koreans. *Korean J. Preventive Medicine*, 36(1), pp1-10, 2003.
- [2] Youn-Hee Choi, Il Seo, Hong-Kyu Son, et al. Associations of dental disease with medical status.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53, pp42-43, 2001.
- [3] Kyung-Hee Cho. Effects of Oral Health Condition to the Quality of Life[Theses for Master's Degree]. Daegu: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Elderly 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2011.
- [4] Ji-Hye Park, Seong Hwa Jeong, Ga Ryoung Lee, Keun Bae Song. The impact of tooth Loss on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Seongju, Korea. *J Korean Acad Dent Health*, 32(1), pp63-74, 2008.
- [5] McGrath C, Bedi R. Can dental attendance improve quality of life? *Br Den J* 190(5), pp262-265, 2001.
- [6] Locker D, Matear D, Stephens M, Jokovic A.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a population of medically compromised elderly people. *Community Dent Health*, 19(2), pp90-97, 2002.
- [7] Jee-Suk Lim. The Relationships of a Self-enhancement Bias,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Old-adults[Theses for Master's Degree]. Seoul: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4.
- [8] Slade GD. Derivation and validation of a short-form oral health impact profile.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5(4), pp284-290, 1997.
- [9] Ji-Sun Park.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and Index of Happiness[Theses for Master's Degree]. Chuncheon: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9.
- [10] Hyun-Seo Yoon. Oral Health Status and Cognitive Happiness of the Elderly[A Doctoral Dissertation]. Gimhae:Inje University, 2010.
- [11] Seol-Hee Kim, Sun-A Lim, Soo-Joung Park, Dong-Kie Kim. Assessment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J of the Korean Acad of dental health*, 28, pp559-569, 2004.
- [12] Ga Ryoung Lee. The impact of DMFT index on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J Korean Acad Dent Health*, 32(3), pp396-404, 2008.
- [13] Lee MS, Kim SH, Yang JS, Oh JS, Kim DK.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 in elderly Korean 65+. *J Korean Acad Oral Health*, 29, pp210-221, 2005.

- [14] Shin DS, Jung YM. Oral health-Related Quality life (OHQoL) and Related factors among elderly women. J Korean Acad Fundam Nurs, 15, pp332-341, 2008.
- [15] Chung-Soon Park, Ju-Yean Chun, In-Suk Park.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Oral Health Control of the Old. J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6, pp93-104, 1999.
- [16] Soon Lye Choi, Seong Hwa Jeong, Hyun Sook Bae, Young Ah Ryu, Youn Hee Choi, Keun Bae Song. A survey of dentur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recipients of the senile prosthetic restoration program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J of the Korean Acad of dental health, 29(4), 2005.
- [17] McGrath C, Bedi R. Can denture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considerable tooth loss? J Dent, 29, pp243-246, 2001.
- [18] Park EU, Kim SJ, Kim SI, Chun YJ, Lee PS, Kim HJ et al.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28, pp638-649, 1998.
- [19] Kim SH, Lim SA, Park SJ, Kim DK. Assessment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J Korean Acad Oral Health, 28, pp559-569, 2004.
- [20] Seok-Ryu Woo, Bu-Il Seo, Chang-Hyun Han. The Impact of Oral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on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J of East-West Medicines, 35, pp39-71, 2010.

강 경 희(Kyung-hee Kang)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 치위생

· E-Mail : dhkhkang@konyang.ac.kr